
기획논문

낭만주의의 다양성

유럽 낭만주의의 본질적인 다양성은 연구와 고찰을 격려하는가, 아니면 어렵게 하는가? 분명히, 18세기 중후반부터 19세기 중후반까지 혹은 이 시기를 전후로, 고전주의와 계몽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양하려는 집단적 의식 혹은 영감이 유럽사회를 뒤흔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낭만주의적 실천은 주체와 역사와 문화에 따라 심지어 상반되는 결과를 산출했다. 이것은 오랫동안 여러 지역에서 펼쳐진 지적 경향의 필연적 결과만은 아니다.

우선 낭만주의는 그 민족주의적 성격 때문에 다양하다. 17, 18세기의 고전주의와 계몽주의는 프랑스적 가치의 보편성을 전제했고, 따라서 낭만주의는 예술과 삶의 새로운 영감을 정당화할 토대를 지역적 특수성에서 찾았다. 그런데 낭만주의는 지역적 특수성을 발견하면서, 그로 인해 가능해진 번역, 망명, 이주, 제국과 식민주의, 더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사유의 가능성을 함께 발견한다. 다음으로 낭만주의는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인 다양성을 긍정한다. 낭만주의자들에게 미적인 인식과 존재는 단지 예술 혹은 예술가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치, 자연과학, 종교, 경제 등의 혁신을 요구하는 근거이며, 여러 영역과 분과에서 이질적인 실천을 요청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낭만주의의 다양성은 근대사회 전체 혹은 근대적 존재양식 일

반의 총체적 갱신을 위한 조건으로 규정된다.

어쩌면 낭만주의란 특수성의 고양을 통해 총체성에 이르려는 불가능한 이념의 한 가지 근대적 표현일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낭만주의는 그 이질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존재의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삶의 방식을 고안하려고 하는 우리의 정당한 근심이다.

여기 모은 세 편의 글은 이러한 근심을 공유한다. 그리고 문제에 학문적인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론적 발상 또한 공유한다. 그것은 낭만주의의 다양성을 낳고 그 다양성에 의해 생산된 지성사적인 맥락을 구체적으로 부각시키고 분석하는 것이다. 즉 낭만주의의 다양성을 성급하게 해소하기 보다는, 종합되어야 할 다양성을 드러내고 그러한 다양성이 요구된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낭만주의 안에 머물기 보다는, 낭만주의가 그 기원에서 앞선 시대와 맺고 있는 관계나, 거꾸로 낭만주의가 해석과 비판의 대상이 될 때 낭만주의 이후와 맺게 되는 관계의 복잡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낭만주의가 자신에게 부여한 역사적 의미와 낭만주의에 부여된 역사적 의미를 통해 그 다양성을 상대화해보자는 것이 다음 글 세 편의 출발점이었다. 김영욱과 이경진의 연구는 앞의 지점에 위치하고, 홍철기의 것은 뒤의 지점에 위치한다.

김영욱은 프랑스혁명과 보나파르트 제정기에 활동한 불어권 스위스 사상가이자 작가인 스탈 부인이 데뷔작 『루소에 대한 편지』에서 계몽주의 철학자의 사상, 문학, 삶을 해석하고 전용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계몽주의의 후계자로서 유럽에서 사유와 자유의 진보를 부르짖게 될 젊은 비평가는, 루소에 대한 “찬사”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루소를 낭만주의적으로 각색할 필연성을 느낀다. “전낭만주의”라 불리는 문학사적 개념이 계몽주의와의 단절을 지시한다 해도, 이 경우 단절은 오히려 앞선 시기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온 결과다. 그리고 이 절치는 스탈 부인과 그의 텍스트가 처한 실존적, 정치적, 문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다.

독일문학을 무대로 삼는 이경진은, 야코비의 1796년 소설 『볼데마르』 그리고 독일 낭만주의의 주역 프리드리히 슐레겔이 야코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집필한 1799년의 『루친데』에서, 사랑과 우정의 관계 변화를 추적한다. 이 서사는 여러 모로 상반되는 관계였던 사랑과 우정이 결혼을 통해 통일되고 그 안에서 주체가 정신적 고양과 미학적 소명을 실현한다는 “낭만적 사랑”의 간략한 발생론이다. 하지만 그것의 역사적 함의는 3년이라는 시간에 갇히지 않는다. 『루친데』가 고안하는 사랑 모델은,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처럼 유럽문화의 구조였던 감정과 이성, 사랑과 우정, 개인과 공동체 혹은 세계의 이분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독일의 정치철학을 들여다보는 홍철기는, 슈미트가 1919년 발표한 『정치적 낭만주의』의 역사적이고 정교한 지성사적 의미를 발굴한다. 슈미트에 의해 낭만주의적 정치철학의 대표로 조금 부당하게 소환되는 아담 뫼러가 당시 지성계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규명되고, 낭만주의에 대한 평가가 19세기 지성사를 재구성함으로써 20세기 전반의 정치철학 지형을 교정하려는 실천적 목적 하에 진행되었음이 드러난다. 이 연구는 하나만으로도 앞의 두 연구가 조명한 낭만주의의 역사적 성격을 다른 방향에서 확인한다. 낭만주의에 대한 여러 시대와 사회의 해석이 언제나 주관적이라면, 우리가 가진 낭만주의에 대한 이미지는 그러한 주관적 재구성의 축적과 종합을 고려하지 않고는 객관화될 수 없을 것이다.

실체와 경계가 불분명한 낭만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은, 그렇다고 해서 덜 구체적이지 않다. 낭만주의의 다양성은 사실 낭만주의의 역사적 구체성의 다른 이름이다. 이제 보게 될 세 연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낭만주의에 대한 더 정밀하고 더 다각적인 후속 연구를 자극할 것이다.

“낭만주의의 다양성”을 토론하겠다는 기획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원의 일관된 지원에 빛지고 있다. 본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연구들은 2020년 10월 17일 열린 공개 집담회에서 공유되고 비판되었다.

집담회에 함께 참여하여 슐레겔과 헤겔의 연극론을 비교한 정대훈의 연구가 여기 없는 것이 무척 아쉽다. 이 기획의 다양성 하나를 독자들이 다른 지면에서 곧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 영 욱